

< Q fever, Chlamydia >

〈學術 發表 演題 및 抄錄〉

第 二 部 : 寄 生 蟲 學 分 野

(6~11 演題, 13:00~14:15)

- 座長 姜 英 培 博士(獸醫科學 研究所)
- 進行 朴 魯 燦 博士(慶北家衛)

6. 앵무새의 *Cryptosporidium* 감염 증례

현직 => 수문 (10월 22일) 2022

국정희 · 심항섭 · 고태오 · 조중현 · 박유순

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

997년 초부터 1998년 3월까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애완조류 사육농장에서 설사 및 폐사를 주증으로
± 10~20일령의 앵무새류 8수가 병성감정 의뢰되어 검사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- 병리해부학적으로 미약한 선위 출혈 및 궤양과 소·대장 전부위 또는 대장에 국한된 수양성 출혈성 장내용물이 관찰되었다.
- 병리조직학적으로 장의 층·출혈 및 장용모 발달부위에 *Cryptosporidium*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층이 관찰되었고, 장내용물 및 장상피세포의 세포질내에도 여러단계의 *Cryptosporidium*이 확인되었다.
- 병변이 확인된 장부위를 PAS 염색한 결과 항산성염색성을 나타낸 *Cryptosporidium* 원충을 확인할 있었다.
- *Cryptosporidium*과 *Giardia*에 대한 특이면역형광검사 결과 *Cryptosporidium*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.
-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의뢰된 가검물은 앵무새의 *Cryptosporidium* 감염증으로 진단되었다.

7. 개 심장 사상충 감염분포 조사

이성모 · 이주호 · 임채미 · 황현순 · 김종훈

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

1997년 2월부터 12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 150두(♀ : 96두, ♂ : 54두)를 대상으로 개 심장사상충의 감염실태를 조사 하였다.

검사법으로는 개 사상충 항원을 단클론성 항체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Synbiotics사의 ICT GOLD™를 이용하여 검사하였고, 검사결과 양성견(1두)을 부검하고 각 장기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. 키트를 이용한 검사에서 감염률은 2.7% (4두/150두)이었으며, 성별로는 ♀ : 2.1% (2두/96두), ♂ : 3.7% (2두/54두)이었다.
2. 연령별로는 2세이상 4.8% (4두/84두), 2세미만 0% (-/66두)이었다.
3. 사육 실태별로 보면 실내사육견 1.4% (2두/145두), 실외사육견 40% (2두/5두)이었으며, 양성견의 품종은 퍼그(2두), 저먼셰퍼드(1두), 그레이트 댄(1두)이었다.
4. 양성견 1두에 대한 병리학적 소견은 폐의 심한 종대, 폐출혈(흑변) 및 심장내 사상충이 다수 존재하였고,
5.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보면 폐 소동맥과 폐 동맥내 microfilaria의 존재가 관찰되었으며 폐포 비후, 혈철소(hemosiderin)존재, 폐동맥 내막의 불규칙한 비후, 심실 및 미주동맥내 microfilaria가 관찰 되었다.

Neospora caninum
원인균인 진균 병

8. 犬의 *Toxoplasmosis*에 관한 研究

이청산 · 곽학구 · 박경재 · 장환*

충북농축산사업소남부지소, 수의과학연구소*

충청북도 남부지역(보은, 옥천, 영동군)에서 사육중인 개에 대한 톡소플라즈마 항체율을 조사하고 국내 분리 *Toxoplasma gondii*를 2개월령의 개의 복강내로 감염시켜 병리조직 및 면역조직화학적으로 관찰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. 총 피검 시료 163두중 10두가 양성으로 조사되었다.
2. 성별 항체 보유율은 암컷 7%, 수컷 5%로 나타났으며 암 · 수간의 특별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3. 총 피검시료 163두에 대한 라텍스응집반응법과 간접형광항체법간의 일치율은 97.5% 였다.
4. 인공 감염 시킨 개의 주요 임상증상은 접종후 5일째부터 발열, 호흡곤란, 설사 등을 나타내고, 접종후 11일을 전후하여 회복되기 시작하였다.
5. 부검소견은 소장엔 점상출혈이 관찰되기 시작하여 접종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간장, 폐장 및

신장 등에서 종창 및 점상, 반상출혈점을 관찰 할 수 있었다.

6.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폐장의 간질성폐렴 및 심한 충·출혈소견이 관찰되었으며, 간장에서는 간세포의 소상피사와 신장에서는 세뇨관 상피세포내 호중구·호염기구의 침윤이 관찰되었다.

7.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결과 폐장과 간장의 세포내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관찰하였다.

8. 혈청내 항체는 접종 후 15일째부터 검출되었다.

9. 연산 오골계(천연기념물)의 기생충 감염조사

이건택 · 이재봉 · 박옥배 · 정영균 · 정영재 · 박일규*

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 부여지소,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*

1997년 4월부터 11월까지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소재 천연기념물 제 265호로 지정된 연산 오골계에 대한 내부기생충 감염상황을 포화식염수를 이용한 부유법으로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.

1. 오골계 종계 분변내 기생충 감염률은 구충전 360수 검사에 76.7% (276수), 1차 구충후 360수 검사에 21.7% (78수) 및 2차 구충후에는 240수 검사에 15% (36수)이었다.

2. 분리한 기생충은 구충전 조사에서는 4종으로 *Eimeria* spp가 207수(57.5%), *Ascaridia galli*가 63수(17.5%), *Heterakis gallinarum* 4수(1.1%), *Strongyloides avium*이 2수(0.6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1차 구충후에는 3종으로 *Eimeria* spp가 73수(20.3%), *Ascaridia galli*가 3수(0.8%), *Heterakis gallinarum*이 2수(0.6%) 순으로 나타났고, 2차구충 후에는 2종이 분리되었는데 *Eimeria* spp가 33수(13.7%), *Ascaridia*가 3수(1.3%) 순으로 나타났다.

10. 토끼 간성 콕시듐증 중감염 증례보고

배성열 · 김철희 · 고바라다 · 김용환 · 오대영

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

토끼의 질병중 가장 흔한 질병중의 하나인 콕시듐증은 집단사육하는 농장에서 주로 발생하며,

경감염시 임상증상은 거의 나타내지 않으나, 중감염시에는 설사 및 쇠약증상을 나타내며 폐사를 일으켜 토끼 사육 농장에 큰 경제적 손실을 주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, 최근에는 정기적인 콕시듐 예방약 투여로 중감염 발생이 희소한 실정이다.

광주 판내 토끼 사육 농장에서 심한 수양성 설사를 주증으로 사육중인 토끼의 약 10%가 폐사되어 병성감정을 실시한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. 육안검사결과 간은 종대되고 1~5mm 크기의 다병소성 농양이 관찰되었다.
2. 간, 담즙 및 분변에서 다량의 *Eimeria stiedai* 원충이 관찰되었다.
3. 병리조직학적 검사결과 담관 및 소장상피세포에서 다수의 *Eimeria stiedai* 충체가 관찰되었으며, 담관상피세포 증식과 소장상피세포의 변성·괴사 및 호중구 침윤 등의 다수의 염증세포 침윤이 관찰되었다.

11. 경북지방 야외 사육견의 내부기생충 감염실태 조사

도재철 · 박노찬 · 장성준 · 조광현 · 박인화 · 손재권 · 김수웅

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

공중위생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야외사육견의 내부기생충 감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경북 군위와 고령의 개 집단사육농장 4호를 대상으로 51두의 분변을 채집하여 총란검사를 실시하고 농장별, 연령별 감염률 및 중복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1. 총 51두의 검사 두수 중 9두가 감염되어 평균 감염률은 17.6%로 나타났다.
2. 기생충 종류별 감염실태는 *Ancylostoma caninum*(개구충)과 *Trichuris vulpis*(개편충)가 33.3%의 높은 감염률을 보였으며, *Toxascaris leonina*(사자회충)가 16.7% 그리고 *Dipylidium caninum*(개조충)과 *Isospora* spp(콕시듐)가 8.3%의 감염률을 나타내었다.
3. 연령별로는 6개월령 이하의 개에서 31.3%, 6~12개월령의 개는 7.7%, 1년 이상의 개에서 18.2%의 감염률을 보였다.
4. 단독 감염이 11.8%, 중복감염이 5.8%로 단독감염이 중복감염 보다 높게 나타났다.